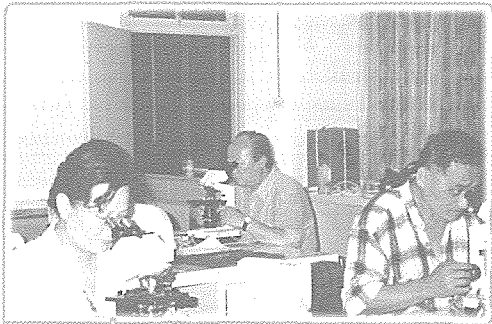


중국 기생충 감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

김 정 현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국 과장

세계 속의 한가운데 있고 우리 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해 온 중국, 어릴 적 중원무림(中原 武林) 검객들의 전설같은 수많은 비화와 삼국지의 영웅들이 살아 숨쉬는 이 땅에 첫발을 디딘 날은 1997. 10. 13. 늦은 오후였다.



지난 '95년 한·중 기생충협력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임한중 회장님을 비롯하여 기생충학자들과 협회 직원들이 이곳 현지까지 와서 안휘·강서·광서성 지방을 중심으로 기생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둬으로써 중국 기생충학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전수해 오고 있다.

우리 일행(회장님, 한양의대 민득영 교수와 최한규 선생, 연세의대 용태순교수, 경기도지부 황의혁 대리)은 가검물이 수집된 장소에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는 물론, 투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생충퇴치 업무를 실시하게 되므로 도착 첫날부터 일정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튿날, 선열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상해를 뒤로 하고 조사대상 지역인 난닝(南寧)으로 향

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우리 일행은 저마다 현지에서 진행할 조사내용에 대해서 생각에 잠겨 있겠지만 생전 처음 밟아 보았던 상해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나의 시선은 구름만 가득 찬 창밖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았다.

지루한 3시간 동안의 비행 끝에 도착한 난닝시는 남방지역으로, 서울과는 달리 후덥지근하여 짐보따리를 챙기는 동안에 벌써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공항입구에서는 난닝시에 있는 광서성 기생충연구소 쉐 소장(소장)을 비롯하여 현지 관계자들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몇 사람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안면이 있는지라 반가웠지만 이들과 며칠동안 생활하면서 나의 특수(?)업무를 짧은 영어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긴장감이 앞섰다.

쿠션없는 차로 마치 우리네 시골길과 같은 도로를 달리면서 눈에 들어온 거무튀튀한 소들의 행렬을 보고 왜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40여분만에 도착한 난닝시 기생충병 연구소에서는 그들 특유의 빨간색 환영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7년 전에 세웠다는 연구소 건물은 미적 감각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짓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투박하게 눈에 들어 왔지만 의외로 커다란 건물에 자못 놀라기도 했다.

우리 일행이 연구하게 될 4층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가검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비가 내려 오후 늦게나 수집되어 올거라는 쉐 소장의 말에 모두 감이 빠진듯 허탈해 보였다. 멀리 타국에서 자기네 주민들을 위한 검사를 해

주러 왔는데 미리 수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 일진데. 이것도 중국인 특유의 “만만다”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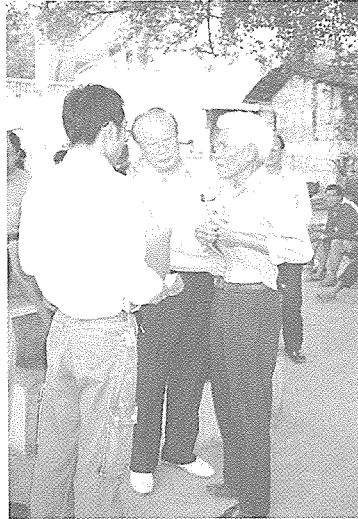
할 수 없이 숙소로 돌아 온 우리 일행은 상해에서부터 동행한 상해시 기생충병연구소 Dr. Feng과 현지조사를 위한 일정을 협의했다. 그 결과 민득영교수의 B팀은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구이린에서 난징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우후로 가기로 했다.

저녁에는 광서장족자치구 위생청(廣西壯族自治區 衛生廳) Wang Rongci 청장의 환영 만찬이 있었다. 중국사람들은 흔히 “소주에서 태어나 항주에서 살고 광둥에서 먹고 유주에서 죽는다.”라며 그 지방 특색에 따라 상징적으로 말하곤 하는데, 오늘 만찬은 광둥요리라 평소 입맛이 까다로운 나에게도 무척 구미가 당겼다.

전통복 차림의 중국 아가씨가 실 틈 없이 따라 주는 팔보차(八寶茶), 적당하게 나오는 20여가지의 전통 중국음식들은 글로 표현하기엔 부족했다. 그러나, 즐겼던 음식들의 재료가 제비 살, 鷄의 糞丸 등이라는 것을 알고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원래 “광둥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것은 비행기만 빼고 땅에 있는 것은 의자와 책상을 빼곤 다 먹는다.”는 속어를 생각하니 별 것을 다 먹는다는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요리솜씨에 더욱 반하게 되었다.

10월 15일 아침, 예정대로 민득영 교수팀은 구이린을 향해 떠났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행은 전날 저녁에 가져 온 가검물을 현지인의 도말을 통하여 검경하기 시작했다. 당초 계획보다 만나질 이상 늦어진 관계로 검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검경을 시작하니, 현지 전문가들도 일상불란하게 기생충검사를 시작했다.

Counter의 소리는 실 새 없이 똑딱, 시계 소리는 박자를 맞추듯 째깍, 숨소리도 안들리는 이 밤에 회장님의 일성이 없으셨다면 나는



눈뜨고 앉은 채로 잠들고 말았을 것이다. 예상했던대로 엄청난 충란(蟲卵)이 쏟아지는 것을 회장님께서 먼저 발견하신 것이었다.

피곤하시니 그만 쉬시라는 말씀도 뒤로 한 채, “I’m happy”라며 중국인들에게 활짝 웃음을 지으시는 노학자의 소명감과 연구 의욕 앞에 나는 그만 숙연해지고 말았다.

중국에 오기 전에는, 여러 학자들을 대동해서 가시니 기생충 전반에 걸친 사항만 Checking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직접 검경을 하고 실 틈도 없이 자정이 되도록 일을 하고 계시니 진정한 학자로서의 성실한 자세 뿐만 아니라 협회장으로서 솔선수범하시는 그 분 앞에서 점점 교만해지고 있었던 내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밤새 뒤척이고 난 후 아침식사는 정말 고역이었다. 가뜰이나 긴장된 상태로 끼니 때마다 나오는 우리 나라 김치격인 유채(油菜)를 먹자니 기름을 입에 넣는 것 같았다. 준비해 간 깻잎으로 대충 때우니, 입안이 한결 부드러웠다.

저녁에는 북경에서 WHO회의 참석차 먼저 도착해서 우리 일행과 합류하게 되는 서울의대 홍성태교수가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었다. 연구소 병원매개물 방제실에 있는 Dr. Yi Tan과 난닝공항에 마중나가기로 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예정된 시간보다 특별한 이유도 모른 채 2시간 연착되었다는 공산주의적 경우(?)에 짜증도 났지만 Dr. Yi Tan과의 대화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중국 청년의 절망섞인 말 속에서 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r. Yi Tan은 필리핀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온 이 나라 엘리트로 선택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직한 소리로 “나는 희망이 없다.”라며 힘없는 미소를 지을 때, 내 마음 속에는 애국가가 울리고 눈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날도 우리

는 까만 밤 별을 세며 숙소로 돌아왔다.

10월 16일, 예정대로 이른 새벽에 현지조사차 회장님, 홍교수를 모시고 上林縣 不孤村으로 향했다. 난닝시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이 마을은 오지 지역으로 연구소에서 분석중인 간흡충, 회충 등 기생충란이 쏟아진 가검물을 가져 온 마을이었다.

가는 길 주변의 모습은 우리 나라 60년~70년대초 시골마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길가 하수로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 어린 아이나 시커먼 좌판에 돼지고기 등을 썰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모습에서 더러움보다 정감을 가졌던 것은 아마도 내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리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때 까지 보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기묘한 형상의 산과 안개가 어우러져 마치 꿈이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탕수수잎이 머리 위를 덮어쓰는 듯한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반겨주는 것만 같았다.

차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회장님께서 카메라를 챙기셔서 마을 입구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로 내려 가시더니 이내 마을 한편으로 급하게 걸어 가신다. 잠깐 마을 경치에 넋이 나간 내가 회장님 모습을 찾으니 벌써 300여미터쯤 앞서 계신다.

부리나케 카메라를 들고 회장님을 따라 갔지만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 마을 골목길을 헤매는데, 집앞에 나와 있던 아낙네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자기네끼리 속닥대며 나를 보고 파안대소를 하는게 아닌가.

“그래 너희들 잘 생긴 한국 남자는 처음보니까 좋지?” 라고 자화자찬하면서 회장님을 찾는데, 웬걸, 허전해서 밑을 보니 아뵘싸 남대문이 시원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마을 주변환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마을 주변을 돌아보고 오신 회장님과 우

리 일행은 마을 이장의 안내를 받았다. 비록 오지마을이지만 향학열은 매우 높다고 자랑을 하는데 마을 사람 중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문에 壯元號(장원급제집)라고 붙인다면서 이 대문, 저 대문을 보여 주었다.

또한, 얼마 전에 지었다는 현대식 초등학교도 안내해 주었는데 오지마을에 영어선생과 Computer까지 갖출 예정이라니 자식 공부시키는 욕심은 우리네와 비슷했다.

마을어귀 커다란 정자나무 밑에서 이미 우리 일행소식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가득했다. 회장님과 홍교수는 기생충 검사결과에 따라 한 사람씩 상담과 진찰을 하고 난 뒤, 중간숙주인 민물고기와 우렁이 등을 채취하여 내일 다시 오겠다며 차에 오르니, 마을 사람들이 정감어린 모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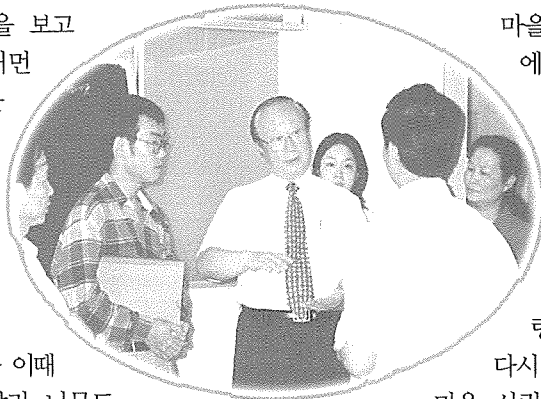
배웅을 해주었다.

저녁 10시쯤, 오전에 채취한 민물고기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회장님께서 “이제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간흡충의 중간숙주에서 기생하는 메타세르카리아를 발견하셨다. 2시간여 내내 현미경과 씨름하시더니, 결국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민물고기를 통하여 간흡충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것이었다.

기생충전문가가 아닌 나에게까지 뜨거운 감동이 오는 것은 아마도 머나먼 타국에서 며칠간 팀웍을 다진 일원으로서의 기쁨보다는 중국 기생충전문가들이 너나할 것 없이 현미경을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심을 수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10월 17일, 회장님께서 연구소에서 전날 저녁에 못다 한 검사를 하시고 홍교수와 옹교수, 황대리는 투약을 위하여 不孤村으로 향했다. 오전내내 검사를 하신 회장님께서 오후에 연구소 사람들과 광서성립중양병원(廣西省立中央病院)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병원은 우리 도립병원과 같은 성격으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현지인들의 암검사에 대한 연구차 방문한 것인데도 처음부터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회장님의 설득으로 이 병원 병리과 부주임인 Dr. 劉時才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내놓았는데 벽장 보관함을 통하여 의외로 아주 완벽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어눌해 보이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완벽성이 그들의 진면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병원문을 나섰다.

10월 18일, 당초 예정에 없던 회장의 강의를 연구소측의 간곡한 부탁으로 오후 3시부터 기생충병 연구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소 내 엘리트들이 전부 모여 회장님의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짜릿한 희열마저 느꼈는데 아마도 한국 최고의 기생충학자에게 배우려는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우리의 우월성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10월 19일, 난닝에서 다음 예정지인 북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용태순 교수는 10월 15일 오후 조사차 간 민득영 교수와 합류하기 위해 우리 일행과 따로 갔는데,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척 신경이 쓰였다.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전날 저녁 늦게까지 남은 반찬을 싸주었는데, 교수님들의 일정까지 챙겨야 나로서는 무사히 현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해야만이 안심할 수 있으니...

10월 20일, 회장님과 홍 교수는 점심시간에 북경 의대교수들과 점심약속이 되어 있고, 오후 5시경에 鄭鍾旭 주중(駐中) 대사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중국에 온지 9일만에 황대리와 나는 북경 시내에 관광차 나섰다.

들뜬 마음으로 나섰지만, 이내 북경 시내의 자전거마저 막혀 버리는 교통난으로 우리는 천안문, 역사박물관, 인민대회장, 모택동 주석 기념관을 동서남북으로 하고 가장 한가운데에서 서서 몸을 돌리며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비

운(?)을 겪게 되었다.

갈 곳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도 지금까지만큼은 봤다고 동료들에게 말할 양으로 입구에서 사진 한 방. 이것으로 고대하던 나의 중국 첫 방문은 호텔에서 책자로 본 유적사진들과 함께 서서히 종을 치고 있었다.

약속된 오후 5시 5분전 KOICA 중국사무소 유인후 소장의 안내로 이원형 공사와 함께 정중욱 주중 대사와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다.

한·중기생충 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우리 협회의 업무에 대해서 심도깊게 대화를 했으며 지원금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 면담을 마치고 鄭대사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준비해 간 알벤다졸을 주고 난 후, KOICA 유인후 소장과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약속을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숙소로 발을 옮겼다.

10월 21일,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신자 지난 며칠간 중국에서 보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루 하루 긴장의 연속에서 잠 못들던 난닝에서의 밤, 주중대사를 만나기 전 전화로 알았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 난생 처음 중국에 와서 사진 몇 방으로 끝내버린 아쉬움, 희한한 중국음식과 우리네 김치의 싱그러운 맛.....

눈을 떠보니 어느덧 낮설지 않은 건물들이 밑으로 보인다.

눈깜짝할 사이 중국여정은 끝나 버렸지만 나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밤을 낮같이 보내며 맡은 연구에 몰두하는 노학자의 모습에서 부끄러워지는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한·중 기생충 협력사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확실히 알았으며, 자기네 일인데도 극히 수동적으로 일하던 중국 사람들에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일행은 그들의 가슴 깊숙이 태극기를 꽂아 놓았던 것이다. ㉔

